국내
마감시황

2026. 2. 9.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투자 심리 회복되며 반등

글로벌 증시 반등하며 코스피·코스닥 4%대 상승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부각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298.04pt (+4.10%)	1,127.55pt (+4.33%)	780.94pt (+4.39%)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59.70 원 (-3.3 원)	3.7540% (+4.4bp)	6,951.00pt (-0.0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2,979 억	-6,059 억	-344 억
외국인	+4,484 억	+1,661 억	+16,674 억
기관	+27,123 억	+4,844 억	-16,844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4%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지속됐던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코스피지수는 다시 고점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장 후반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검토와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예정 소식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코스닥의 추가 상승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날 KOSPI는 4.10%, KOSDAQ은 4.33%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6.3조원, KOSDAQ은 약 12.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나흘 만에 KOSPI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 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2조 7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IT 서비스와 섬유/의류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주도주인 반도체 주가가 빠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국내증시 거래대금 증가세와 더불어 미래에셋증권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데이터센터향 태양광 수요 증가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회복 기대감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반면, 게임 업종이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아모레퍼시픽(+20.25%), 미래에셋증권(+11.25%), SK스퀘어(+9.53%)가 올랐고, 엔씨소프트(-6.24%), DB하이텍(-3.88%), 카카오페이(-2.00%)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